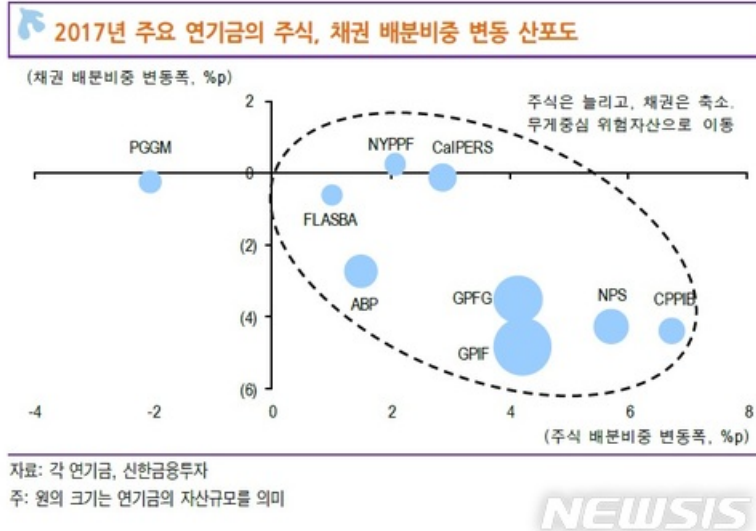


글로벌 연기금, 주식 늘리고 채권 줄였다...국민연금 채권 비중 50% 아래로

등록 2018.04.04 14:41:46



지난해 주요 연기금 주식 비중 5%p 증가
글로벌 주가지수가 채권지수 17.2%p 앞질러
국민연금 처음으로 채권 비중 50% 아래로

【서울=뉴스시스】김지은 기자 = 글로벌 연기금이 위험자산 비중은 확대하고 안전자산 비중은 축소하고 있다. 채권 비중이 절반을 웃돌았던 국민연금도 처음으로 50% 밑으로 내려갔다.

글로벌 증시가 전반적으로 안정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금리 인상에 접어들면서 채권 비중은 줄이고 주식 비중은 늘리는 전략을 택하고 있다는 평가다.

4일 신한금융투자에 따르면 국민연금과 캐나다 국민연금기금에 해당하는 CPPIB, 일본 공적연기금(GPIF), 노르웨이국부펀드(GPFG) 등 4곳의 주식 비중은 작년 평균 5%포인트 증가했다.

미국 연기금과 ABP, PGGM 등의 유럽 연기금, 호주 국부펀드인 퓨처펀드(Future Fund) 등을 포함한 9개 주요 연기금의 주식 확대 폭은 2.9%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 국민연금의 금융투자부문 포트폴리오를 보면 주식 비중은 2016년 33.7%에서 지난해 38.6%로 4.9%포인트 늘었다. GPIF는 46.9%에서 51.1%로 4.2%포인트, GPFG는 62.5%에서 66.6%로 4.1%포인트 확대됐다. CPPIB는 상장주식 기준으로 45%에서 51.7%로 6.7%포인트 높아졌다.

국민연금과 CPPIB의 위험자산 비중 확대 속도는 금융위기 이후 가장 빠른 수준이며, GPIF의 경우 정책 자산배분 변경이 있었던 2014년 이후 가장 빨랐다.

채권의 비중은 반대급부로 축소됐다. 국민연금의 채권 비중은 54.3%에서 50.4%로 줄었다. 올해 1월말 기준으로는 49.6% (단기자금 0.2% 포함)로 사상 처음으로 50%를 밑돌았다. GPIF, CPPIB 등도 4%포인트가량 떨어졌고 미국, 유럽도 비중 축

소가 확인됐다.

배분 비중 변화는 자산별로 수익률 격차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위험자산 강세가 비중 확대를 유발한 것인데 양호한 경기 흐름과 통화정책 정상화가 배경이다. 금리와 가격은 반비례 관계인데 금리가 오르면 채권 가격은 떨어지게 된다.

김성한 연구원은 "2017년 글로벌 주가지수는 채권지수를 17.2%포인트 웃돌았다"며 "연기금별 벤치마크의 차이, 환율 효과 등을 감안하더라도 수익률 변화가 자산배분에 전가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낮았던 변동성도 위험자산의 확대를 자극했다. 주요 선진증시의 기대위험을 뜻하는 내재 변동성지수는 2017년 역사적 저점 수준을 유지했다"며 "결과적으로 위험자산의 기대 위험조정성과(기대 수익률/기대 위험)가 높아지며 최적화 모형 상위험 자산의 배분 비중은 확대된다"고 보충했다.

위험자산 중심의 자산 배분은 올해에도 이어질 전망이다. 최근 변동성 장세는 부담이지만 단기 위험 요인에 그칠 것이라는 평가다.

김 연구원은 "양호한 경기 상승세와 통화정책 정상화를 고려하면 위험-안전 간 기대수익률 격차 확대는 지속될 것"이라며 "변동성도 하향 안정화돼 위험자산의 비중 확대를 재차 유발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어 "높아진 비중을 유지하기 위해 신규 유입 자금의 위험자산 투입 비중은 과거보다 커지는 점까지 감안하면 연기금은 글로벌 증시 수급에 우호적 변수"라고 덧붙였다.

국민연금도 중기 자산배분 계획에 따라 2021년까지 주식 비중을 45%로 늘리고 채권 비중은 45%로 축소할 방침이다.

kje1321@newsis.com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